

빛가람혁신도시 기관 부채 140조... 빛잔치 속 임원 월급 올랐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부채가 2년째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지만, 지난해 8개 기관은 임원 연봉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혁신도시 이전이 시작된 2014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3개 기관들의 신규 채용 증가는 단 26명으로 쪼그라들었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13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2019년 결산 정보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이들 기관의 총 부채는 140조4575억원으로, 전년(125조5000억)보다 12.1%(15조) 급증했다.

혁신도시 13개 기관들의 부채총액은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5조6000억원이었던 총 부채는 2017년 120조원, 2018년 125조300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혁신도시 기관 부채 급증은 전체 부채총액의 91.6%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영향이 컸다.

한전의 부채총액은 114조1563억원에서 128조7081억원으로 1년 사이에 14조5518억원(12.7%) 급증했다.

부채총액 91.6%가 한전... 13개 기관 당기순이익 첫 '마이너스' 상임임원 평균 연봉 1억6100만원... 신규채용 증가 26명에 그쳐

한전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1년만에 최대 적자를 냈다. 온실가스 배출권, 미세먼지 대책, 설비투자 등으로 나간 돈은 많은데 덜 덜 추운 날씨와 여름철 요금 할인 혜택 등으로 들어온 돈은 줄었기 때문이다.

한전을 포함해 지난해 부채가 늘어난 곳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전년보다 5895억원이 늘어난 9조1734억원을 빚으로 안았고, 나머지 기관들의 증가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547억원, 콘텐츠진흥원 119억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55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54억원, 전력거래소 35억원, 인터넷진흥원 27억원, 농촌경제연구원 13억원, 한전KDN 4억원 순이었다.

부채비율은 농수산물유통공사(610.3%), 농어촌공사(431.8%), 인터넷진흥원(273.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88.1%), 한전(186.8%), 방송통신전파진흥원(36.4%), 한전KDN(35.9%), 콘

텐츠진흥원(29.1%), 한전KPS(27.8%), 전력거래소(21.1%), 농촌경제연구원(20.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채비율은 전년(316.1%)보다 무려 98배 된 3만1000%로 공시됐다.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12개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55.4%였다.

농담이처럼 불어난 부채와 매출 부진으로 지난해 혁신도시 기관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나주 이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3개 기관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8874억6200만원으로, 전년 당기순이익 3918억3800만원 보다 무려 1조2790억 넘게 줄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곳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모두 전년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줄었거나 흑자를 내지 못했다. 혁신도시 기관들은 140조원대에 달하는 빚더미

를 떠안았지만 지난해 8개 기관은 임원 평균 연봉을 전년보다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개 기관의 상임임원 평균 연봉은 1억 6100만원으로, 전년 1억5900만원보다 240만원(1.5%) 가장 올랐다. 연봉을 인상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임금을 준 곳은 방송통신전파진흥원(2억 900만)이었고, 한전(2억500만), 한전KDN(1억 8800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억8600만), 농수산물유통공사(1억6000만), 농촌경제연구원(1억4800만), 사학연금(1억4700만), 농어촌공사(1억3500만) 순으로 고연봉이었다.

지난해 혁신도시 채용규모(13곳)는 3175명으로, 전년보다 단 26명 늘었다. 채용규모가 줄어든 곳은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DN,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학연금 등 9곳이었다.

혁신도시에 분사·분원을 둔 17개 기관 가운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해양경찰교육원 등 4곳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혁신도시 기관 부채·임원 평균 연봉

(2019년 결산 기준·단위: 원)

	부채총액	연봉
한전	128조7080억	2억500만
농어촌공사	9조1730억	1억3500만
농수산물유통공사	1조1320억	1억6000만
사학연금	7450억	1억4700만
한전KPS	2960억	1억2600만
한전KDN	1600억	1억8800만
인터넷진흥원	740억	1억7000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580억	2억900만
전력거래소	550억	1억4200만
콘텐츠진흥원	290억	1억4500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50억	1억8600만
농촌경제연구원	100억	1억4800만
문화예술위원회	6억	3억3800만
합계/평균	140조4570억	1억6100만

(자료:알리오)

광주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돕기 '선결제 캠페인' 동참

영업점 인근 피해 가게

2억1000만원 선결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에 지역 금융권도 동참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지난 달 27일부터 본점과 전국 영업점 인근 가게에 2억1000만원 상당을 선결제했고, 임직원들이 3240만원 상당을 이용했다.

광주은행은 선결제를 한 임직원과 부서·지점을 추첨해 은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선결제 캠페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공식 SNS(인스타그램)에 선결제 동참을 장려하는 게시글과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정부 주관으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동네 가게, 카페 등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는 소비자 운동이다.

송종욱 행장은 지난 4일 본점 인근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법정서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인식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뜻 깊은 일에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길 바란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동행하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종욱(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지난 4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인근 음식점에서 선결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신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액 3000억원 넘겼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례보증' 금액이 3000억원을 넘겼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월13일부터 5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9700명에 총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광주시가 지원하는 1년 치 이자(2.9%)와 보증 수수료가 합쳐 최대 259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신

보는 코로나19 특례보증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급 단기인력과 금융회사 파견자로 이뤄진 전담반을 운용해왔다.

한편 코로나19 보증공급이 급증하면서 광주신보는 1996년 7월 재단 설립 이후, 24년 만에 누적 보증금 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달 말 광주신보 보증잔액은 1조원을 넘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태도시 담양에 자연친화 명품 힐링 아파트

'e-리버시티' 747세대 공급

광주 상무지구 15분 내 접근

생태도시 담양에 자연 친화적인 명품 힐링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 에스힐㈜(회장 서수용)와 담양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욱)는 영산강변을 바라보는 최고의 조망권과 담양군 최초 1군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건설하는 'e-리버시티' (가칭)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서 등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e-리버시티' (조감도)는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58번지 일원 6만6000여㎡에 17개 동이 들어서며 59㎡(76세대), 84㎡(552세대), 114㎡(119세대) 등 3가지 타입으로 총 747세대가 건설된다.

시공은 대립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맡아 지역 내 최최소의 메이저 브랜드로 들어서게 된다.

'e-리버시티'는 담양첨단 복합단지과 인접해 있으며 광주 상무지구 신도시까지 15분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광역시권의 쇼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영산강변에는 약각지구 체육공원을 비롯해 백전공원, 관어공원,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이 있어 최고의 힐링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장성·순창 등과 연결되는 13번과 24번 국도, 광주-대구 고속도로, 담양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지에 다 광주 첨단지구와 상무지구의 배후 역할을 톡톡



히 하고 있다.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4Bay 타입(일부 평형 제외)으로 설계됐으며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모든 세대에서 시원한 조망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가격대는 800만원대로 예상하며 현재 1차 조합원 600세대를 모집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광주·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이하 주택 소유자는 일반 분양보다 낮은 공급가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에스힐은 설명했다.

서수용 에스힐㈜ 회장은 "제 고향에서 분양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명품 힐링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다"며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접근성의 장점과 향후 담양군의 랜드마크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진화하는 '5월 광주' 문화 콘텐츠

40주년 기념 문화 행사 풍성

세계에 5월 정신 알리는 다국적 전시 기획
40주년 기념 뮤지컬, 연극, 발레 등 신작 무대

문화 화계

슬기로운 온라인 문화생활

클릭, 문화현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휴과 건축의 세계 최초 건축도자미술관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아른 역사 현장 관광자산으로 베를린 다크투어리즘

에향이 만난 이 사람
KIA타이거즈 2020시즌 지켜볼 필승조 전상현

예향 초대석

호남의병 역사 재정립, 사학자 홍영기

"의로운 사람들, 역사가 기억해야죠"

문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가사문학의 진수 한자리에
담양 한국가사문학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⑤
코로나에 직격탄 맞은 대중문화와 연예인
DJ 정신을 심은 숲

평택의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개냥③
사랑한다면 등록하세요
반려동물도 '코로나' 걸린다

유연준의 도시건축⑨
코로나19, '핀포인트 방역'이 답이다

김정음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⑩
'공방교육' 체계화시킨 칸딘스키

도시자연, 행복의 도시 풍경의 완성⑤
전철역에 가면 예술 만나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류가주, 광양 드라이브 여행
- 강, 바다, 산 그리고 문화
- 건강한 매실, 시원한 재첩